



DJ센터서 전국 펜싱대회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U대회 펜싱 경기 테스트이벤트를 겸해 열린 2015 전국남녀중목별오픈 펜싱선수권대회 예매 중독에서 주민우(한국국제대)와 김승구(화성시청)가 겨루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2300루타... '기록 요정' 꽃범호



### 만루홈런 1위 이어 역대 26번째 기록

### 스틴슨-장원준 투수전... 두산에 2-1 승



이범호의 기록 행진은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 내야수 이범호가 28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7회말 장원준을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때려내며 개인 통산 2300루타를 달성했다. KBO리그 역대 26번째 기록이다.

이날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한 이범호는 첫 두 타석에서는 모두 외야플라이로 물러났지만 1-1로 맞선 7회 1사에서 들어선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 안타를 기록, 2300루타에 부족했던 1루타를 채웠다.

이후 대주자 박준태로 교체가 되긴 했지만 김다원의 몸에 맞는 볼로 채워진 2사 1-2루에서 최용규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이범호의 2300루타를 채운 안타는 역전 득점의 발판이 됐다. 두 번째 타석에서도 중견수 플라이로 1루는 밟지 못했지만 이범호의 플라이로 3루에 있던 필이 홈에 들어오면서 두산의 강적 장원준을 상대로 한 2점을 모두 이범호가 만들어냈다.

팀이 연패에 빠져 있는 동안 함께 침묵을 했던 이범호의 방망이가 같이 살아나면서 더 반가운 기록이 됐다. 24일 NC전을 시작으로 두산 허준혁과 유희관을 상대했던 주말 2연전 모두 이범호는 안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꾸준함이 올 시즌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프로 16년차 이범호의 기록 행진은 이어지고 있다.

4월4일 kt전 만루포가 기록의 시작이었다. 이범호는 시스코를 상대로 11번째 그랜드 슬램을 작성하면서 이승엽(삼성)을 따돌리고 현역 만루 홈런 1위로 올라섰다. 5월11일에는 넥센 김명민을 상대로 12호 만루포를 쏘아올리며 심정수(22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 만루포와 함께 팀은 넥센전 12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범호는 4월10일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출전하면서 51번째로 1500경기에 출장 기록을 채웠다. 5월16일 두산 홈경기에서는 통산 24번째 800타점 고지를 밟았고, 6월23일 NC 원정에서는 연타석 홈런도 때려내며 강렬한 활약을 했다. 하지만 꾸준함이 부족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이범호. 팀 타선을 이끌 주장의 뜨거운 방망이가 필요하다.

한편 KIA는 28일 8이닝 3피안타 2볼넷 2탈삼진 1실점의 호투를 기록한 스티븐슨을 앞세워 2-1로 승리를 거두며 3연패에서 탈출했다. 마무리 윤석민은 9회 첫 타자 김현수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1점의 승부를 지키며 시즌 16번째 세이브를 장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무패행진 마감, 포항에 발목

### K리그 클래식, 광주 FC 1-2 패

광주 FC의 연속 무패 행진이 마감됐다.

광주 FC가 지난 27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 포항과의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1-2로 패했다. 0-2로 뒤진 후반 21분 안영규의 만회골이 나왔지만 추가골을 넣지 못하면 5경기 연속 이어졌던 광주의 무패 행진(3승2무)이 마감됐다.

기대했던 김호남의 부상 복귀전이 무산된 가운데 안성남이 오랜만에 선발 명단에 들어갔고, 파비오 임선영이 전면에 나섰다. 주현우-안성남-송승민으로 공격 라인을 구축한 광주는 이찬동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해서 이오펜-안영규-정준연-이종민으로 포백 수비진을 구성했다. 골대는 권정혁이 맞섰다.

광주의 활발한 공격이 이뤄졌지만 실수에서 분위가 기울었다. 전반 8분 골키퍼 권정혁이 백색스 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그 틈을 노려 포항 문창진이 달려들면서 경합이 벌어졌다.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손준호가 키커로 나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20분 역습 과정에서도 포항 황지수에게 공을 뺏기면서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킥을 얻어냈던 문창진이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0-2가 됐다.

실점 이후 재정비에 나선 광주가 포항의 골문을 열기 위해 공세에 나섰다. 그리고 전반 42분 페널티킥이 나왔다. 페널티 박스 라인에서 임선영의 패스를 받은 송승민이 공을 잡고 돌아서는 과정에서 상대의 반칙으로 넘어졌다. 페널티킥이 선언됐지만 키커로 나선 안영규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신화용의 선방에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0-2로 전반을 마감한 광주가 후반 공격을 주도하며 분위기가 반전해 나왔다. 그리고 후반 21분 안영규가 앞선 실책을 만회하는 골을 터뜨렸다. 코너킥 찬스에서 이오펜이 올린 킥이 안영규 쪽으로 향했다. 높게 튀어오른 안영규의 헤딩 슈팅이 이번에는 시원하게 포항의 골대를 갈랐다.

광주는 후반 25분 임선영을 빼고 신인 류범희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세우면서 전술을 변화를 줬다. 그리고 짧은 패스를 앞세워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상대 골키퍼의 선방 패러디로 속에 추가골을 얻지 못했다.

경기가 1-2로 끝이 나면서 광주의 포항전 첫 승과 6경기 연속 무패 행진 도전은 어렵게 실패로 끝이 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 창단

KIA 타이거즈와 기아자동차가 함께 지원하는 '타이거즈 리틀야구단'을 통해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이 창단됐다.

KIA와 기아자동차가 지난 2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2015시즌 제2회 타이거즈 리틀야구단 대회를 열고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기초체력 및 기본기 훈련은 물론 포지션별 전문 훈련까지 진행하며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송인동 광주YMCA 이사장, 이신호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백석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 단장 등이 참석한 이날 창단식에서 KIA와 기아자동차는 2014년 리틀야구단 지원금 중 7893만원을 리틀야구단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동차는 2014년 리틀야구단 지원금 중 7893만원을 리틀야구단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경기에 앞서 KIA 주장 이범호가 백석 단장에게 리틀야구단 깃발을 전달했으며 KIA 선수단은 특별 제작한 '리틀야구단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했다. 또 이날 시구는 광주기아 YMCA 리틀야구단 이도준(삼정초 5년)군이, 시타는 2014년 리틀야구단 우수 기부자 기아자동차 노상욱 기사가 맡았다.

한편 '타이거즈 리틀야구단'은 국내 최초 모기업-프로구단 연계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경기 기록에 따라 KIA 선수와 구단 임직원, 기아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부금을 매월 적립, 시즌 종료 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 KIA, 7~8월 '서머 대학생 할인'

KIA 타이거즈가 방학 기간을 맞아 대학생들에게 7~8월 홈경기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좌석은 K9석과 K7석, K5석, K3석, 외야석으로 대학생은 3000원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매하거나 티켓을 구입할 때 '서머 대학생 할인' 티켓을 선택하면 된다. 야구장 입장시 김표원에게 티켓과 함께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야구장 입장시 김표원에게 티켓과 함께 학생증을 제시해야 한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야구장에서 열정을 발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이번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

▲"너 태어나기도 전에 주니치에서 주전 포수 하신 분이야." = 28일 훈련 시간에 나가무라 배터리 코치가 김호령의 과의 선생님으로 나섰다. 스윙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직접 시범을 보이 나가무라 코치. 현장을 지나치던 포수 이성우가 김호령에게 "너 몇 년 생이냐?"라고 물었다. "92년생입니다"는 대답에 이성우는 콧방귀를 끼며 "잘 들어. 나가무라 코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니치에서 주전 포수 하셨던 분이야"라며 시라졌다. 재일교포인 나가무라(한국명 강무지)코치는 1985년 주니치에서 데뷔해 요코하마, 라쿠텐을 거쳐 2005년 은퇴했다. 주니치에서 선동열 전 감독과 배터리를 이룬 선수로도 유명하다.

▲"생각은 좋았지만 행동이 부족했죠." = 마음은 베테랑인 설익은 신인이다. 외야수 김호령은 지난 27

## 김호령, 기습번트 아웃 후 "생각만 좋았어요"

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속스러운 아웃을 기록했다. 2-4로 뒤진 5회말 2사 1루에서 타석에 선 김호령이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 그러나 투수 쪽으로 정직하게 간 타구였던 터라 발보다 공이 빨랐다. 전날 기습 번트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시도는 괜찮았다. 생각은 좋았지만 행동이 부족했다"고 웃었다. 김호령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김호령은 "3루수가 뒤로 가 있어서 시도를 해봤다. 뒤 타석에 김주찬 선배가 계셨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바깥쪽으로 공이 왔는데 더 배트를 휘어야 했었다. 파울이 되면 한 번 더 해본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넘어갈 것 같아서요." = 에이스 양현종에게

는 아쉬운 홈런이었다. 양현종은 27일 두산과의 경기 선발로 나와 1-2로 뒤진 3회 양의지에게 좌측 담장 넘어가는 스리런포를 허용했다. 앞선 경기까지 98.2이닝을 15실점으로 막았던 양현종이었지만 6.1이닝 4실점을 하고 마운드를 내려와야 했다. 팀은 두 개의 스리런포를 날린 두산 양의지의 화력에 막혀 4-9패를 기록했다. 양의지의 타구가 날아간 방향을 한참을 쳐다봤던 양현종. 덕아웃에서 마주친 김기태 감독은 "현종아 어제 왜 한참을 보고 있었냐?"라고 물었고 양현종은 "안 넘어갈 것 같아서요"라고 멋쩍게 웃었다. 김 감독은 "공이 안 넘어가는 걸로 생각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 너에게 물어보지 못해서 답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여울기자 wool@